

큰 스님 수행한담

그대로가 극락이지요”



1988년 천안 독립기념관 앞에서 법전(해인총림 방장) 일타(은해사 조실)스님 등과 함께한 해암스님(오른쪽에서 두번째).

죽어도 좋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환적공을 찾지 못하고 대신에 다른 새로운 공에서 '깨달음의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서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육식을 지내고 나니, 귀가 바글바글 울리고 손발 마디마디 뻘뻘하더군요.

行 따르지 않는 앓은 아무 소용없어요

“남의 탓하지 맙시다...자업자득 아닙니까”

어느새 사십년을 계속해 장좌불와를 하게 되었을 뿐인데지요.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에 걸림없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오래하고 있는 것보다 일도양단해서 간절히 할 때에 힘을 얻고 덕을 보는 것이, 그저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랍들은 엉뚱한 곳에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아단이니 큰일입니다. 어서 빨리 자신의 마음 찾는 공부를 해야지요. 우리가 팔고 다니는 이뽀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줌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찬가지입니다. 이 몸뚱이는 분명히 나의 것이면서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을 천번, 만번 소중히 다시 태어나도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살아 보아야 괴롭고만 하지,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밥먹고, 세수하고, 화장실가고, 남을 돕거나 해치는 일, 뭐 그런거지, 그밖에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길에서 몸을 주웠듯이 몸보다 더 중요한 법법을 만나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보물이 있는데 엉뚱하게 밖에서 구하려고 하니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콧구멍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 있고, 콧구멍 속에 한량없는 부처님 나라가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깨치고 보면 시방세계가 모두 나로부터 나오고, 하늘과 땅, 해와 달 역시 내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내 마음 자리에서 보면 수없이 스러졌다 일어서는 바다의 파도만도 못한 것입니다. 경전에 있는 말을 바로 알아야 행여 집착으로 안다면, 이는 크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도는 모양이 없는 것이어서 물건과 같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천 분이 나타나신다 해도 나의 일은 모릅니다. 자기 마음은 오로지 자기가 깨달아 써 먹어야지요.

‘일주일만에 도 깨치겠다’ 한주 한주 참선정진 하다보니 40년 장좌불와 했어요

팔만대장경을 다 읽었다고 하더라도 '이 뭐꼬?' 하며 참선하는 사람을 담하지 못합니다. 도라는 것은 오직 내가 깨달은 것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말이며 참선보다 더 큰 기도는 없습니다. 참선은 곧 활구(活句)요, 장법(杖法)이요, 부처님입니다. 도 앞에서는 부처라는 글자도 보잘 것 없습니다. 부처의 불(佛)자를 풀어도 부처님이 참선을 해서 부처가 되었다는, 이 뜻을 아는 사람은 그대로 '살 길'을 만난 겁니다. 사람의 몸을 받았으니 참선 공부를 해볼만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러한 법을 만났다면 이보다 복이 많은 사람은 없겠지요. 이러한 법을 안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일지라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마음자리에서 보면 모든 인간관계가 터럭끝만도 못한 것인데 사람들은 '내 아들', '내 딸' 하면서 집착합니다. 이 집착을 버려야 병이 고쳐집니다. 사람이나 귀신이나 자식에게 집착하는

버릇은 마찬가지로입니다. 옛날, 부처님 시대에 어느 집에서든 아이만 낳으면 잡아다가 자기 세끼에게 먹이는 귀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귀신의 버릇을 고쳐려고 그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막내아들을 빼앗아 왔습니다. 귀신은 애가 타서 부처님을 찾아와서는 "내 막내아들이 없어졌으니 부처님의 도력으로 찾아주십시오"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은 "너도 자식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왜 사람의 아이를 잡아다가 네 새끼들에게 먹여 남을 슬프게 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고 싶거든 이제부터는 사람을 잡아다가 먹이지 말라" 하시며, 바릿대에 담아 두었던 귀신의 막내아들을 내어주셨답니다. 이때부터 귀신은 바릿대 물을 먹고 살았고,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사람이나 귀신이나 할 것없이 모두 자기 자식에게 집착하여 죽을 길만 찾다니니 안타깝" 그지 없습니다. 열

관범이 기도·영불보다 낫습니까  
스님께서는 불자들이 일반적  
으로 좋아하는 기도나 영불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  
는 것 같습니다. 대신 마음공부와 관  
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까닭을 다시  
들을 수 없겠는지요.  
(장오월·김원도 정선군 복면)  
우리를 몸 속에 지금 많은 모  
습과 수심(水心)에, 아니 해어질 수  
없이 많은 모습과 의식들, 생명들이  
들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  
까? 마치 한 나라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과 같은데 그 하나  
하나가 다 각각이면서 동시에 들어  
있어 버린 겁니다. 다시말해 그 중에  
어느 어느 것만이 그 나라이고 나머  
지는 아니라고 할 수 없지요. 큰 회사  
에서 각각의 공장이 있고 직원이 있  
다고해도 공장이나 회사, 사원이나 사  
장이 들어 아니지요. 그게 들어이면  
두 회사고 두 나라이지 한 회사, 한  
나라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몸에도 수많은 의식과 생명이 있지만  
그런데 이 마음이란 말입니다.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빛깔도 없지  
만 그릇 아닌 그릇에 우주 삼천대  
천세계를 담을 수도 있고 시간 공간  
을 초월해서 아니 미치는데 없습니  
다. 그래서 우리들의 근본 마음자리는  
무한량(無限量)의 위대하면서 그 모음이 이  
루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뭐가 아  
쉬워서 망상이나 허상(虛相)에 묶여  
있고 불교 애를 태워야 하느냐 이 말  
입니다.  
이것을 한번 잘 새겨 들어 보세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가고 없고 미래는

지상상담  
김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  
생애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  
스로 보내주세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선원 대법스님께 맡겨  
달음으로써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38

그게 하나요 한마음인 것입니다. 물론  
이 몸뚱이는 시자노릇을 하고 마음은  
주인노릇을 한다지만 저 자동차가 운  
전기때 차와 운전기사를 떼어서 생각  
할 수 없듯이 내 마음이 이레라 저레  
라 하면 몸이 자동적으로 그것을 따  
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라는 것 말입니  
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  
라 선업·악업이 해어질 수가 없이 많  
고 그걸 갖가지로 망상이 일어나  
는데 이걸 어찌 못해서 그만 찢찢  
매고 울고 웃고 한탄 말입니다. 그런  
게 도무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니  
까 마음대로 대처하지를 못합니다.  
운전기사가 운전기사 노릇을 못하고  
자신이 사장 노릇을 못하고 만다.  
기령 차가 어디에 고장이 생겼다고  
할 때, 나라 한 구석에서 무슨 일들  
이 벌어졌다고 할 때 그것의 나온  
곳을 알아야 처리하는 도리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그  
걸 모른다 말입니다. 모르면서 고작  
한다는 일이 내가 한다, 내가 먹는  
다, 내다, 내다... 하거나 하니 그리  
다가 몸 떨어지면 그야말로 헛고생  
하고만 생이 됩니다.  
내게 다가오는 일들이 유전성에서  
온 것인지 영계성에서 온 것인지 업  
보성에서 온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꼭 버리든지 할텐데 그걸 모르니까  
새 물을 먹을 줄은 모르고 하고한날  
묵은 물만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  
서 뭐가 뭔지도 모른채 '아이구 부처

사찰·수련원·휴양시설·노인복지회관 부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오륜수원지 인접  
동래관광호텔에서 단 15분거리  
소재지 ● 부산시 금정구 ● 면적 : 1,352평  
● 건물 : 4동 (법당, 요사채, 식당으로 사용)  
불사에 원력을 세우신 스님, 불자님들께서 직접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 상담문의 : (051)516-9997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  
김철(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오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오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  
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  
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  
게 좋은 향기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  
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뻣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도외감상신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지희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